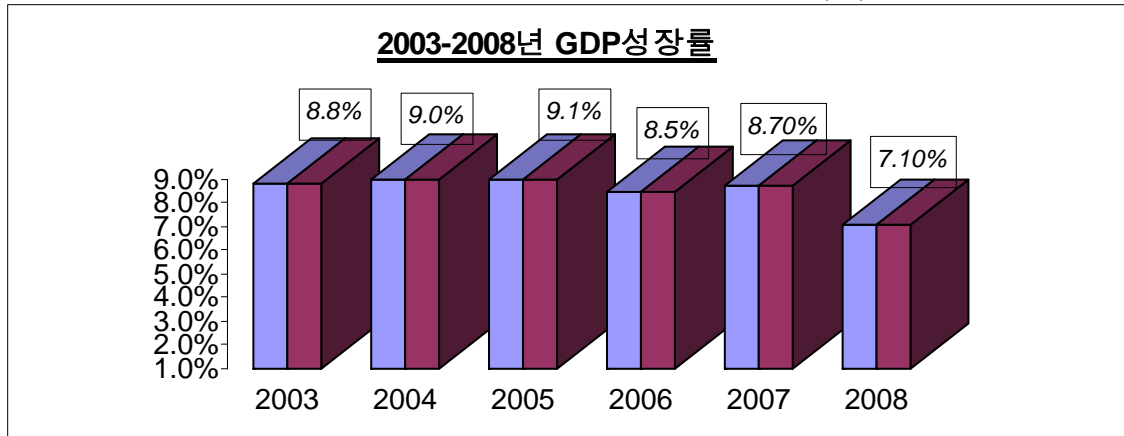


아르헨티나, 2008년 중 GDP 성장률 7.1% 기록

- 아르헨티나 지리통계원(Indec)은 지난 1월 24일 아르헨티나의 2008년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7.1% 증가하였다고 발표
- 이런 결과는 지난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연간 약 9%대의 성장 기록을 유지한 것에 비해 낮은 것으로 2008년의 글로벌 경제의 불황으로 국내산업 생산도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줌

2003~2008년 중 GDP 성장률 추이(%)



- 국제금융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인 2008년 3/4분기 중 아르헨티나 GDP는 전년 동 분기 대비 6.5%, 직전분기 대비 1.3% 성장하였음.

분기별 GDP 성장률(%) 추이

구 분	'07. 4/4	'08. 1/4	'08. 2/4	'08. 3/4	'08. 4/4
전년 동분기 대비	9.1	8.3	7.6	6.5	-
직전 분기 대비	2.0	0.6	2.3	1.3	-
최근 4분기	8.7	8.3	7.9	7.5	-

자료 : 아르헨티나 국가통계원(INDEC)

- 2008년 3/4분기 부문별로는 아르헨티나 전체 GDP의 가계소비 부문이 6.6%, 정부지출은 6.2%씩 증가하였으며 기계설비, 인프라 등 총고정자본 투자증가율은 8.4%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.

부문별 증가율(%) 추이

구 분	'08. 1/4	'08. 2/4	'08. 3/4	'08. 4/4
가계소비	8.2	7.5	6.6	-
정부지출	6.6	7.7	6.2	-
총고정자본투자	20.3	13.8	8.4	-
상품·서비스 수출	6.1	-1.6	12.1	-
상품·서비스 수입	22.1	24.6	13.4	-

자료 : 아르헨티나 국가통계원(INDEC)

- '08년 3/4분기 총고정자본 투자 중 건설부문은 2.8% 증가하였으며, 내구재 생산 장비 부문은 16.2% 증가하는데 그쳐, 지난 1/4분기의 34.8% 대비 크게 낮아졌음

총고정자본투자 부문별 증가율(%) 추이

구 분	'08. 1/4	'08. 2/4	'08. 3/4	'08. 4/4
건 설	10.1	7.4	2.8	-
내구재 생산장비	34.8	23.5	16.2	-
(국내)	(15.8)	(10.4)	(11.0)	-
(수입)	(46.4)	(32.6)	(19.2)	-

- 2008년 3/4분기 중 산업별 성장률은 전년 동분기 대비 1,2차 산업이 각각 3.6%씩, 서비스업이 7.5%씩 성장하였음.
- 1,2차 산업 가운데서는 어업(23.5%), 제조업(5.5%) 등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, 건설업은 지난 1/4분기 9.7% 성장한 이후,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, 제조업 성장률도 1/4분기 6.2%, 2/4분기 6.0%로 낮아져 둔화조짐을 보이고 있음.

- 서비스업 중에서는 금융업(17.5%)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가운데, 운송·창고·통신업(11.9%) 및 상업(6.3%)이 서비스업 평균성장률을 상회하였으며, 임대(5.9%), 건강·의료(4.1%), 공공서비스(3.2%) 부문은 평균성장률을 하회하였음.

산업별 성장률(%) 추이

구 분	'08. 1/4	'08. 2/4	'08. 3/4	'08. 4/4	'07년 전체
1·2차 산업	5.9	3.0	3.6	-	7.9
(농축산업)	(2.2)	(△3.4)	(△1.9)	-	(10.3)
(어업)	(△35.0)	(6.4)	(23.5)	-	(△6.4)
(광업)	(3.7)	(△3.8)	(2.3)	-	(△0.5)
(제조업)	(6.2)	(6.0)	(5.5)	-	(7.6)
(공공유틸리티)	(4.5)	(4.1)	(2.6)	-	(5.7)
(건설)	(9.7)	(6.0)	(2.7)	-	(9.9)
서비스업	8.9	9.5	7.5	-	8.7
(상업)	(8.5)	(11.6)	(6.3)	-	(11.1)
(호텔 및 음식)	(9.3)	(7.0)	(6.3)	-	(8.2)
(운송·창고·통신)	(13.8)	(13.1)	(11.9)	-	(13.7)
(금융)	(18.5)	(23.3)	(17.5)	-	(18.6)
(임대)	(5.9)	(5.9)	(5.9)	-	(4.7)
(공공서비스)	(4.8)	(3.8)	(3.2)	-	(3.7)
(건강·의료)	(5.3)	(4.7)	(4.1)	-	(4.8)
(기타서비스)	(6.4)	(6.3)	(6.3)	-	(6.4)

자료 : 아르헨티나 국가통계원(INDEC)

- 아르헨티나 지리통계원은 지난해 9월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세계경제 위기 상황을 감안하면 아르헨티나의 7.1% 성장률은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라고 평가
- 그러나 지난 9월까지 양호한 실적을 보여준 경제성장률이 10월~11월 사이 월간 성장률이 크게 하락했으며, 12월엔 다소 회복세로 전환하였지만 세계경제 위기의 여파가 아르헨티나 산업활동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 신호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

- 실제 자동차 산업과 민간 건설업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경기 침체가 진행되면서 국내 경제전문가들 중에서는 아르헨티나 경제가 '09년엔 '02년 이후 7년 만에 또 다시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

- 중남미 연구재단(Fiel)과 유엔 산하 중남미·카리브 경제위원회(CEPAL), 미국 투자은행인 모건스탠리 등은 아르헨티나 경기침체가 올해 남미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하면서 성장률이 0.5~2.6% 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

<사용과울루 사무소 제공>